# 2024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 연번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 방송국 | | 총 인원 (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 (명) | 경영진 외(명) | | | | |
| 1 | '24.10.29. |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 6/10 | 6 | 1 | 13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 장래숙 위원,
윤지석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3 | 5 | - | 1 | 9 | - | 9 |

나. 사업자 반영

| 구 분 | 수 용 | 의견 참고 | 반 론 | 합계 |
|---|---|---|---|---|
| 건 수 | 9 | - | - | 9 |



다. 전월(9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보도 | **<지천댐 관련 보도>** 지천댐 관련 보도가 4건 있었는데 주요 쟁점을 잘 정리했고 다양한 의견들을 균형있게 잘 다룬 것 같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 지천댐 보도는 심층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함. 다만 개발과 환경의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도 방향에 대해 균형있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보도 | **<지역 이슈 집중 보도>** 보문산 개발, 태안화력 폐지, 공주보, 세종보 등 지역의 여러 이슈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집중 보도해 주었으면 함 | 보문산 개발 등 지역 이슈 보도는 몇차례 보도하면서 집중취재로 다뤘지만 환경 파괴 문제점 등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보도 | **<지자체 성과 보도>** 충남도 20조 투자 분석 보도는 좋았음. 대전 영시축제도 성과 분석과 관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알려주었으면 함. | 성과가 부풀려 졌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임. 성과 부분이 틀렸다는 단서가 포착되면 집중 보도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보도 |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 보도가 항상 사망했다 까지만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과 뒷수습까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함. | 사회적 약자이자 제도권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말씀주신대로 더욱 신경써서 보도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보도 | **<재난 관련 보도>** 재난보도시 지자체의 재난구역 선포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해 주기 바람 |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고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데 계속 팔로우하며 심층보도 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보도 | **<딥페이크 피해 관련 보도>** 피해 확산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술의 문제인지 정보통신망법상 규제가 불가능한 건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 가해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인 상황에서 조심스러우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는 필요해 보임. 신분 노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교양 | **<시시각각 패널>** 주로 남성 패널들이 출연을 하는데 주제 때문에 섭외 한계성은 있겠지만 균형있게 여성들도 출연시켰으면 함 | 저희도 여성 패널이 너무 없어서 찾아보자고 했는데 본인들이 고사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음. 좀 더 신경을 쓰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교양 | **<라이브라이프사운드>** 교양적 요소에 예능 쪽으로 다뤄지면서 수준 높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음. 소리와 음악이 잘 어울리는 게 좋았음.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제작진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의 의견을 전달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 교양 | **<라디오-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의 특성상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데 다각적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제작해 주었으면 함. | TV용으로 제작을 해놓았음. 지역사에서 돌아가면서 TV로 방송을 하고 나면 유튜브에 올릴 예정임. **<24. 10월 조치>** | '24.9월 |
| 기타 시청자게시판 | **<뉴스 앵커 교체 안내>** 휴가 등의 이유로 7, 8월경에 뉴스 진행자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안내가 필요해 보임 | 라디오 진행자처럼 팬덤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멘트를 해주는데, 뉴스의 경우 뉴스 전달이 우선이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24. 10월 조치>** | '24.9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임기)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 평가기준 | 해당여부 |
|---|---|
| 2024년 10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 |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 구분 | 성명 | 전 · 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문 | 비고 (임기)* |
|---|---|---|---|---|---|
| 위원장 | 손병우 | 충남대학교<br>언론정보학과 교수 | (사)한국언론정보학회 | 언론단체 | 23.05.01~25.04.30 |
| 부위원장 | 박주영 | 대전지방변호사회<br>부회장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장래숙 | 대전광역시<br>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대전광역시청소년<br>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김영진 |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br>이사장 | 대전청년내일센터 | 소외계층대변 | 23.05.01~25.04.30 |
| 위원 | 이인복 | 원도심문화예술행동<br>사무국장 | 원도심문화예술행동 | 문화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윤지석 | 대전광역시의사회<br>부회장 | 대전광역시의사회 | 과학기술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이진희 |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br>협회장 | 대전광역시<br>사회복지사협회 | 인권단체 | 23.05.01~25.04.30 |
| 위원 | 김미화 | 대전YWCA<br>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 대전YWCA | 여성단체 | 24.05.01~26.04.30 |
| 위원 | 이섬교 |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 재능나눔 징검다리 | 청소년단체 | 24.05.01~26.04.30 |
| 위원 | 정성일 |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br>기획홍보팀장 | 민주노총<br>대전지역본부 | 노동단체 | 24.05.01~26.04.30 |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앵커의 리포트>**<br>뉴스 앵커가 취재기자 역할까지 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애쓰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시민 인터뷰 관련>**<br>지역 축제나 지역 행사 보도시 정치인보다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인터뷰를 넣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따뜻하고 밝은 보도>**<br>좋지 않은 뉴스도 보도해야 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뉴스도 많이 내보내 주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토론 패널 참여자>**<br>지역 현안을 다룰 때는 예산이나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패널을 섭외해 주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시시각각의 방향성>**<br>개론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과 현실적인 피해 내용을 실제로 담아주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MBC 소년소녀합창단 노래>**<br>KBS의 경우 좋지 않은 뉴스가 끝나고 나면 경치, 전시회, 클래식 등 편안한 내용이 나오는데 MBC도 소년소녀합창단 음악을 방송했으면 함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br>대체적으로 기승전결을 잘 잡고 있고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부정적인 부분만 다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처음 다룬 것 같아 좋았음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철도 르네상스 다큐>**<br>일본의 철도를 다루면서 대륙 진출이라는 철도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언급과 민영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주었으면 좋았을 것 | **회의록 첨부** | ○ | | |
| 기타 |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br>즐거운 오후2시 선곡표 문의 관련해서 10월24일과 10월20일 어느 날을 말하는 건지? | **회의록 첨부** | ○ | | |

# 2024년 10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6명)
손병우 위원장,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10월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시청자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청자 의견을 살펴보시면 총 7건인데요. 라디오 난청 문의 4건, 홈페이지 관련 문의 2건, 기타 요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따로 있으신지요?

손병우 위원장
라디오 선곡표 관련 시청자 의견이 있는데요. 20일과 24일 중 어느 날 선곡표를 궁금해 하신 건가요?

이은표 경영국장
20일에 게시된 의견인데, 내용으로는 도래하지 않은 24일 선곡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질의 후에 20일 선곡표로 답변 완료했습니다. 다른 질문 특별히 없으시면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지난달과 이번 달에 창사 60주년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 달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특집 프로그램들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손병우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창사 특집 관련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위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장래숙 위원님부터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60주년 기념해서 취재, 방송에서 진행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주말 뉴스와 시시각각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임세혁 편성국장님이 뉴스 앵커와 취재기자 두 역할에 모두 나와서 놀랐습니다. 국장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을 반납하고 먼 청양까지 가는 등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고마웠습니다.

<시시각각>은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시의적절 하게 잘 선정해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수도, 기후변화, 지역대학의 문제점 등 골고루 다루시더라고요.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작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독서의 위기와 무너지는 지역 서점에 대해서 다루셨더라고요.

계룡문고 폐업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 경제적 부분, 예산, 독서 등 전부 잘 봤습니다. 프로그램 패널로 희망의 책 대전 본부장, 대전서점조합, 초등학교 교사, 독립서점 대표 등 출연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관련 지역 서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서점 관련 문제는 지역민들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개선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면 <시시각각>에서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 참여 단체 등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면 패널을 통해 정치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핵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편 좋았습니다. 경찰대 편도 좋았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기승전결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지역 방송을 보면 프로그램마다 특유의 억지텐션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게끔 진행해주시는 것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곳의 특징을 잘 따서 음악에 그 소리를 담아내는 게 좋았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면서 계속 느낀 건 충청권에서 거의 유일한 어린이재활병원인데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만 소비가 됐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미 있는 의료 행위들도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많은데요. 처음에 후원 약정과 협약 문제라든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을 계속 다루는 등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에서 지역 방송 중 거의 처음으로 그 안의 이야기를 조명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 안의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는지 자세히 보여주신 것 같았고요.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지점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예인 진행자 분들도 무언가를 얻어 가면 촬영 이후에 현지에 선물을 보내는 등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보도부문은 MBC에 한정된 의견은 아닌데요. 지방 의원의 해외 연수 관련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몇 년째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라든지 지역 언론사든지 상관없으니 한 번 몰래 따라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취재 형식처럼요. 대전 전 현직 의장 분들의 호주 연수, 동구 의원 분들 미국 연수, 식장산 개발 관련 알프스 관광들이 이뤄졌었거든요. 이런 건 누가 봐도 문제라고 생각되고 누군가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제 중 하나인 것 같아서요. 연합이든 단독이든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에서는 기후변화와 서점 관련해서 다뤘는데요. 항상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다보면 개론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내용의 강의와 설명이 있고 이를 통해 다들 이런 점을 알고 있어요. 거시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개론보다는 실질적인 방법과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실질적 피해와 같은 내용이요. 얼마 전 제가 접한 이슈가 있어요. 대덕구에 공장이 많은데 정부에서 RE100대응을 제대로 안 하니까 수출 납품이나 부품 계약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장님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거시적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의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윤지석 위원
전체적으로 60주년 덕분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의 홍성군 편, 충남



아산 경찰대 편 등 오락적 요소와 더불어 우리네 삶, 우리 고장의 기관을 소개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캠페인을 하면서 부여 이주 여성이라든지 청양보건 의료원을 소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MB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 강경 젓갈 축제와 10월 28일 논산 딸기 축제에서요. 시장님이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정치인이거든요. 꼭 정치인 인터뷰를 해야 하는 꼭지였나 생각하지 않는데 시민 인터뷰를 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년 총선 무렵에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뉴스에 나오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MBC라면 정치인 출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이 좋아하고,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대전MB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6일에 11월 2일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 당진 철도 시대 개막을 알린 뉴스에서도요. 내용 전달할 때 자료화면만 나오고 시민의 기대감, 인터뷰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뉴스, 아름다운 뉴스, 가슴이 따뜻한 뉴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뉴스를 보면 대마 재배, 대전 사립대 성추행 관련해서 보도했고요. 25일에는 10대 성폭행 뉴스, 특히 시청자 위원회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JMS 뉴스 등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27일에 논산에서 대전 시의원 사망한 뉴스, 26일에 금산 하천 사망자 관련 뉴스 등 요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이와 반대로 24일 경우 현실판 아이언맨 장애인 보행 보조 로봇, 여광조 대표의 장애인 자립을 돕는 내용 등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뉴스도 보도해야 하지만, 좋은 뉴스, 따뜻한 뉴스, 아름다운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박선진 앵커 리포트가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선진 앵커의 이런 다짐이 좋았습니다. 누가 옳은 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찾아가는 숙론이 필요하다는 말도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 비용,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회가 되었거든요.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이 아니라 공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가 되는 데 언론이, 대전MBC가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질서 정돈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데 어떤 다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위원

10월 28일에 충북 청주의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뉴스를 다루고요. 교제 폭력 때문에 사망한 50대 여성 가족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조 필요성을 이야기한 내용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관해서는 피해자 보호법, 처벌법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교제 살인에 대한 법안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에 이런 뉴스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출연연 기관장들이 공석이라는 게 국가행정이 적절하게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들이 나와서요. 그런 지점이 와 닿았습니다. 저희는 여성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7개월째 공석입니다. 이런 기관이 상당수 많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행정이 계속 지적받았지만, 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녹여낸 것 같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시시각각>에서 다룬 기후위기, 독서 인구 감소 위기 관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전 지역에 계룡문고 같은 향토서점이 없어진 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시각각>이 방영되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이 대전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 많고 실태를 담으려 노력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장래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참여한 토론자들이 독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정서적인 설득과 어필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시원한 해법이 없는 건지, 방법이 없기에 국가에서 나서지 않고 있는 건지 등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 해법이 필요했는지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시해주면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더 갖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국가 지원도 안 되고, 이런저런 노력이 있지만 현실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해법을 시원하게 제시할 만한 누군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요. 현재 다른 나라들이 탄소 중립국, 감소 정책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역행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가 행정적인 부분, 국가 협약에 대해 압력을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의 부족한 행정적 역할과 행보에 대해 지적한 것 같아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 어린이, 보호자의 희망찬 이미지를 보여준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섬교 위원
이번 달 지켜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박선진 아나운서의 앵커의 다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앵커를 하는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딕션, 전달성이 놀라웠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앵커로서의 새로움과 타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차이점이 박선진 앵커님에게 확실히 부각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르네상스 레일 이즈 백>을 봤는데요. 1부를 보면서 70분 동안 거의 영국, 일본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더라고요. 편성 70분 중에 반은 외국, 반은 국내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역 내 철도 르네상스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텐데 같이 비중을 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시각각>에서 지역 대학 문제를 다루면서 건양대 부총장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건양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대학의 문제보다는 건양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는요. 기후변화는 다각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권을 연결시키는 보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느꼈습니다.  60주년 기념 보도,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60주년 특집 프로그램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철도 르네상스 레일 이즈 백> 1부를 봤는데요. 순간적으로 대전MBC 60주년에 왜 철도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부 예고를 보니 철도가 탄생 시킨 대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 2편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1부를 보니 전체적 구성, 섭외가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 섭외, 기록화, 사진 관련 자료 탐색 등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궁금해졌고요. 구성과 그림 상으로는 완성도가 있었고 품격 있는 화면이었다 말씀 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영국과 일본의 철도 역사 관련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교양차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우를 보면, 일본의 촘촘한 철도망과 메이지 정부의 철도망에 대한 진심어린 태도부터 시작해서 요코하마 무역항과 도쿄의 연결, 신칸센 도입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철도를 이야기할 때 대륙 진출이라는 철도의 군사적 이용을 한 문장이라도 언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도의 군사적 이용이 일본 철도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대전MBC 60주년의 맥락은 아니더라도 언급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한국의 방송이라면 일본 철도를 이야기할 때 철도의 군사적 이용을 빼먹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계기가 되는, 여러 측면에서의 근대의 새로운 출발이 조명되었는데요. 그것이 한 때 사양길을 걷다가 다시 철도가 재생되고, 철도의 가치가 다시 재발견되고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로 조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철도 교통 분담률이 높은 영국과 일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나라는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섬세한 보조적인 정책이 함께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요. 철도 민영화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철도의 미래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점이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철도의 공공성을 역행하는 민영화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 섬세한 민영화 방안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내레이터 지진희씨가 조그마한 화면에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분장이 없이 집에서 막 촬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좋은 지적, 말씀, 칭찬 감사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시시각각>의 패널 구성,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시각각>은 지역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 역할 정도인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무게감 있는 패널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기후 변화와 지역 서점 관련해서 개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대응방법과 지역민의 실제 피해 내용을 담아달라고 하셨는데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 말씀 중에 시민 인터뷰 부족하다는 평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진 앵커에 대해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가 어제자로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앵커의 다짐이라는 PR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보도 방향은 나쁜 뉴스만을 보도하기보다는 나눔의 현장과 사람 등 착한 영향력을 알리는 뉴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경우는 현재 심각한 대전, 세종, 충남의 갈등 구조가 심각한데 이런 지역 갈등을 타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앵커가 제시해 보자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약속드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부정기적으로라도 앵커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좋은 뉴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가 기승전결을 잘 잡으면서 병원의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을 담은 게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작진들 분위기도 좋고요. 11월에 4편 방영되고 12월에 마무리되는데요. 대전 엑스포 광장, 문화예술 단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연정국악원 등에서 가수 현진영씨가 사람들을 만나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산 예당에 가서 김범수 씨가 만나보는... 그 이후엔 가수 임정희, 원슈타인이 출연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 인간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해주신 따뜻하고 좋았다는 칭찬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박선진 앵커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아나운서 스타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도의 시작, 부흥, 근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일본이었기 때문에 기획안에 1부를 해외로 구성하고 2부에서 국내 지역을 다루자고 했습니다. 자료가 많았다면 1부에도 국내 이야기를 넣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자료는 철도공단, 코레일, 영국현지코디, 철도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하신 철도 민영화의 그림자, 일본 철도 발전에서의 군사적 의도 등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잘 이야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부 모니터 중이어서요. 다음번에는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평일 뉴스는 젊은 아나운서가 하는데 주말에 중년 아나운서가 안정감 있게 진행하는 게 좋았습니다. 편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좋은 뉴스를 다루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뉴스들도 다뤄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KBS는 안 좋은 뉴스가 끝나고 항상 경치, 전시회, 클래식 등 편안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MBC도 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음악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뉴스 브릿지에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 창작동요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다음 달부터 입상한 10곡을 20, 30초 분량의 캠페인으로 만들

어서 TV로 캠페인화해서 방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상곡이 김치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김장철에 화제가 될까 싶은데요. 보시고 다음 달 회의 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더 말씀 없으시면 손병우 위원장님께 마무리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지난 9월 말 대전MBC 비전 선포 공개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방청을 했고요. 대전MBC 진행자 분들, 출연자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10월, 11월 계속해서 60주년 특집으로 고생하시는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재 사장
깨알 같은 지적과 평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평가와 좋은 말씀, 날카로운 지적 참고해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